

무주~서울 버스 1일 생활권 촉구

무주군의회·무주군, 서명 운동 전개... 주민들 염원 국토부에 전달키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지난 21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번 서명운동은 서울행 첫차를 8시 이전으로, 무주행 막차를 오후 6시 이후로 편성하여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건의안'을 무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무주군의회와 무주군이 함께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전복고속과 금남고속 대표 및 임원진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 조정안으로 제출되어 조정 심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무주군은 한 해 방문객이 5백여만 명 이상의 관광지로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영원인 만큼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장기 간 표류되지 않고 조속하게 해결되어 군민과 내방객들의 대중교통이



무주군의회와 무주군(이)이 지난 21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을 펼쳤다.

용 불편이 해소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서명서에는 산골에서는 무주군민의 삶이 변하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고대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다"라며 "군에서는 무주~서울 일일생활권이 하루빨리 실현돼 무주가 편하게 살기

좋고 찾아가 쉬기 좋은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명 운동에는 150개리 이상·부녀회장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을 보탤 것이며, 군민의 뜻을 모은 서명은 국토교통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랑상품권 5% 할인율 큰 효과

5월 판매금액 1억4800만원으로 전달대비 59.4% 증가

장수군의 지역화폐 '장수사랑상품권'이 할인율을 도입한 후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장수사랑상품권'이 4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5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상품권 할인율(5%)을 도입한 후 5월 판매액이 1억4800만원으로 전달 8800만원에 비해 59.4% 증가했다. 기관단체 판매액은 341만원에서 1163만 5000원으로 3.41배, 개인 판매액은 100만 5000원에서 4746만원으로 47배나 늘어 군민의 상품권 구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은 6월 현재 250여개로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

국, 병원 등 장수군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를 비롯한 관내 농·축협 11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신청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2) 혹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할인율로 인해 군민들의 상품권 구매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오는 추석명절은 10%로 인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승마장, 7월 2일부터 일반인·유소년 승마교육

장수승마장은 일반인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32명을 선착순 모집해 7월 2일부터 제2기 승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승마교육은 장수군이 2017년부터 1

시·군 대표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3기수에 걸쳐 일반인 80명과

유소년 20명 등 100명을 선착순 모집해 진행하며 1기는 4월 23일 시작해 교육을 마쳤다. 승마 교육은 승마 기본자세와 기승과 하마, 보법, 말과의 교감, 안전사고 예방, 마구관리 및 장작 방법 등 20회 구성되며 승마 체험을 병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리 마을은 치매안심마을'

진안군 치매안심마을에 제1호 '마령면' 선정

진안군은 지난 20일 마령면을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하고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진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치매안심마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마령면 2개 전체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치매파트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25일에는 치매안심마을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 및 주민 대표를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친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담장 벽화그리기 등이 진행되며, 매주 2회 치매 치매 인지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지역 전체에 치매 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치매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스 자동잠금 장치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치매안심마을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치매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 만들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60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 △치매환자 비중 5% 이상 △지역자원 연계 가능성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은 대표 관광지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장수누리파크, 와룡자연휴양림, 뜰샘생태관광지 등 4곳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은 장수군 민선7기의 중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

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으로 19억20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국·도비 8억3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군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화장실·편의시설·경사로 개보수, 장애인 위한 관광안내정보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역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진안군은 최근 군청 강당에서 산림청과 전라북도 공동으로 국립지리원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주민 설명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 전라북도 양정기 산림대행, 신갑수 군의장, 이한기 도의원,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전북대학교 이창현 교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용역회사인 (주)한국종합기술 하병규 상무가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패널 5명이 지역발전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조백환 진안군의회원장은 "기본계획서에 주민, 지자체와 협의하고 반영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주형 영남대학교 교수는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고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산림청의 산촌 거점거점 육성사업과도 연계하여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상반기 퇴임식

진안군은 지난 21일 2019년 상반기 퇴임식을 퇴임자 가족, 후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강당에서 개최하고,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퇴임자는 △김재영(시설공원사업소) △변상희(용담면) △서기태(상전면 민원복지팀장) △성배현(동향면) △성을경(보건소장) △송두환(맑은물사업소) △신현영(건설교통과) △인병용(안전재난과장) △이상득(보건소) △이승호(마령면장) △전을기(동향면장) △정영순(보건소) △정영희(용담면 산업팀장) △최경진(상전면장) △최영국(백운면 부면장) △한귀희(문화체육과)씨 등 16명이다.

이날 퇴임식에 참여한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과 송용호 공무원노조위원장, 동료 직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퇴임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퇴임자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남기는 영상메시지와 후배공무원들이 퇴임자에게 전하는 축하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다. 퇴임자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군립합창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기장군체육회 생활체육 교류

무주군체육회와 기장군체육회가 함께 한 체육행사가 지난 22일부터 1박 2일 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체육활동을 통해 자매결연도시인 기장군과 친목을 다지고 영호남 생활체육교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4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22일 실천면 소재 나들리조트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무주군 체육회장)와 오규석 기장군수,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그리고 기장군체육회 김결환 회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두 지역이 거리도 멀고 사는 환경과 가진 자원이 많이 다르지만 서로 아끼고 특별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가족과 다름없다"라며 "이 자리가 우리의 형제애를 더욱 돈독히 해주고 두 지역 생활체육교류를 더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오규석 군수는 "언제 와도 마음 편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무주"라며 "무주와 인연을 맺은 걸 항상 흐뭇하게 생각하며 두 지역이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